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1)*

- 1차 통신사부터 5차 통신사까지를 중심으로

정 응 수**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일본인과 후지산
 3.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
 4. 선계(仙界)로서의 후지산
 5. 끝내는 말
-

1. 시작하는 말

최근 일본에서는 후지산(富士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물론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후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좌절되면서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었지만, 여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적극 가담하여 말 그대로 거국적인 후지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즉 1999년 후지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후지산 클럽’이 설립되어 마이니치(毎日)신문사와 공동으로 ‘후지산 재생 캠페인’을 실시하자 후지산 문화권이라 부를 수 있는 후지산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호응하여 2월 23일을 ‘후지산의 날’(2, 2, 3은 일본어로 후, 지, 산이라 읽을 수 있다)로 제정하려는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후지산 바로 알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의 요시다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2002년부터 3학년에 ‘후지산학(富士山學)’이라는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후지산 주변의 문학이나 후지산록의 관광개발, 후지산의 생물 등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그러자 일본정부에서도 2004년 11월에 새로 발행된 천 엔(圓)짜리 지폐에 후지산 문양을 도입¹⁾하여 이러한 분위기의 전국적 확

* 이 논문은 200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일본학(비교문학·비교문화)

1) 물론 지폐에 후지산 문양이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938년 발행된 50전짜리 지폐에 후지산 그림이 도입된 이래 1951년과 1969년 발행된 옛날 5,000엔(圓)짜리 지폐에도 후지산이 사용되었다.

산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1월에는 후지산에 대한 학제적(學際的)연구를 추진하여 후지산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의 융성을 꾀하고 주변지역의 생활, 문화, 환경보전 산업진흥 등에 기여할 목적을 가진 후지학회도 창립되었다. 그들은 후지산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역도 포함하는 광의의 후지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교육, 생활, 환경, 방재, 산업 등 모든 관련 분야에 걸친 종합적 영역의 학문을 후지학(Fujiology)이라 규정²⁾하고, 심포지엄과 연구발표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사실 문화지리학이라는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이룩한 문화나 역사는 그 인간이 속한 자연환경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는 한 인간이 속한 자연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인간이 쌓아올린 역사나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후지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지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일본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후지산에 대한 자연지리적인 지식과 후지산이 일본인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 다음, 우리는 후지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텍스트로는 조선시대 일본을 다녀온 사절단들의 기록인 ‘해행록(海行錄)’을 주로 사용할 것이지만, 논문 매수의 제한이 있어 여기서는 1차 통신사부터 5차 통신사까지만 다루기로 한다.

2. 일본인과 후지산

후지산³⁾은 혼슈(本州)의 거의 중앙에 해당하는 시즈오카현(靜岡縣) 북동부와 야마나시현(山梨縣) 남부에 걸쳐 있는데, 광대한 산록을 가진 독립봉으로 동으로는 하코네(箱根) 화산과 서쪽으로는 덴슈산지(天守山地), 남쪽으로는 아시타카산(愛鷹山)과 스루가만(駿河灣), 북으로는 미사카(御坂)산지와 미쿠니(三國)산맥에 접하고 있다. 1936년 하코네와 함께 후지 하코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55년에는 이즈(伊豆)를 포함하여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이 되었다⁴⁾.

2) 西川治, 『富士學會設立趣意書』, 『第1回富士學會大會2002報告書』, 2003년 2쪽

3) 일본에서 ‘후지(ふじ)’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713년 겐메이(元明, 661-721)천황의 명으로 편찬된 『히타치노쿠니 풍토기(常陸國風土記)』이다. 여기에 후지산 신에게 숙박을 거절당한 조상신(祖神尊)이 그 보복으로 후지산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여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기는 ‘복지(福慈)’라 했지만 발음은 ‘후지’이다. 이후 만요집(萬葉集)에서는 ‘부士·不盡·不自·不時·不二’, 『다케토리 이야기(竹取物語)』에서는 ‘不死라 표기되었다. ‘富士란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781년 간무(桓武, 737-806)천황의 명에 의해 편찬된 『속일본기(續日本紀)』부터이다

4) 이하 후지산에 대한 자연지리적인 사항은 『日本地名大百科』(秋庭隆 편집 小學館 1996년)와 『富士山

기저(基底)는 북북서와 남남동 방향으로 긴 축을 가진 타원형이지만, 산의 모양은 거의 원추형에 가깝다. 산의 직경은 38km이고 산록의 둘레는 153km, 면적은 900km²이고 부피는 1,397km³에 달한다. 대내원(大内院)이라 불리는 산정 분화구의 직경은 800m이고 깊이는 220m, 둘레는 3.5km이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오하치(お鉢)라 부르는데, 표고 3,776m로 일본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겐가미네(剣ヶ峰)를 비롯하여 8개의 봉우리들이 분화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식생(植生)은 기온이나 강수량, 지표 구성물을 반영한 전형적인 수직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500m의 신5부 능선 부근이 삼림한계(森林限界)이다.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2,800m까지 후지산의 삼림한계를 나타내는 낙엽송이 자라고 있으며, 산정 부근에서는 암석에 착생하는 이끼나 추운 극지방에 사는 지의류(地衣類)가 발견된다. 산정의 평균 기온은 1월이 -19.2°C이고 8월이 5.9°C. 1년 중 최고 기온이 0°C 이하인 날은 221.5일이나 된다. 눈 내리는 날이 120.9일이나 되고 적설(積雪) 기간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무려 9개월이나 되므로,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만 일반인의 등반이 허용된다.

4단계의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성층(成層)화산인 후지산은 최근에 밝혀진 선고미타케(先小御岳)화산이 기반을 이루고 그 위를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 사이에 활동한 고미타케화산이 덮고 있다. 이 고미타케 화산의 일부는 후지산 5부 능선의 가와구치호(河口湖) 등산로 입구에 있는 고미타케신사 부근에 노출되어 있다. 그 후 약 10만 년 전에서 8만 년 전 사이에 시작된 화산활동으로 인해 고후지(古富士)가 생기고, 약 1만 년 전부터 유동성이 강한 현무암질 용암이 다량으로 분출되어 오늘날과 같은 완만한 원추형의 신후지(新富士)가 생성되었다.

역사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산정의 분화구나 기생화산의 활동은 계속되어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된 781년의 분화를 시작으로 1707년에 이르기까지 십 수회에 걸쳐 분화했다. 864년의 분화는 북서쪽 사면에 있는 나가오산(長尾山)에서 용암이 분출된 것으로, 수해(樹海)로 유명한 아오키가하라(青木ヶ原)를 만들고 세노우미(剱海)를 사이호(西湖)와 쇼지호(精進湖)로 나누었다. 현재는 활동을 쉬고 있지만, 화산의 수명으로 보면 아직 청년기에 해당하는 젊은 화산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자연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지산은 그저 1707년의 분화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휴화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고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을 것이다. 1년의 2/3 이상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가도 한 번씩 불을 뿜어내는 후지산은 말 그대로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마베노 아카히토(山部赤人, ?-?)가 후지산을 거룩하고 고귀한 봉우리라 해와 달도 그 빛을

2004년 『山と溪谷』7月号増刊 山と溪谷社, 2004년), 『圖説富士山百科』(別冊歴史讀本14, 新人物往來社, 2002년), 富士山NET(<http://www.fujisan-net.jp>), あっぱれ富士登山(<http://www001.upp.so-net.ne.jp/fujisan/>) 등을 참고했다.

없고 구름도 오가지 못한다고 노래⁵⁾한 이래, 후지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산악신앙의 하나인 슈겐도(修驗道)가 7세기 후반 엔노 오즈누(役小角?-)가 후지산에서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에는 불교와 슈겐도의 영향을 받아 후지산을 센겐신(淺間神)으로 모시는 센겐신사(淺間神社)가 출현하게 된다. 이후 이 센겐신은 부처나 보살이 일본인을 구제하기 위해 일본의 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에 의해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 미코토(木花咲耶媛命)라는 일본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바뀌어, 1,3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센겐신사에서 받들어 모시는 신이 된다. 이 센겐신사의 총본사가 오늘날 후지노미야시(富士宮市)에 있는 후지산 본궁 센겐대사(富士山本宮淺間大社)인데, 후지산정에 오궁(奥宮)을 두고 후지산 8부 능선 위를 신사의 경내로 삼고 있는 후지신앙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또한 하세가와 가쿠교(長谷川角行, 1541-1646)가 후지산 서쪽 산록의 동굴에서 80년간 수행을 한 다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후지코(富士講)도, 후지산을 센겐(仙元) 대보살이라 칭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후지코의 지부라 할 수 있는 ‘코(講)’의 숫자가 에도(江戸)에서만 팔백 팔개에 이를 정도로 후지코가 맹위를 떨치자, 이들의 세력화를 두려워한 막부(幕府)에서 7번이나 금지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각 ‘코’별로 돈을 적립하여 등산철이 되면 대표자를 뽑아 후지산을 등반하도록 했는데, 선발된 사람들은 백의에 방울과 금강장을 휴대하고 후지산에 올라 성지인 분화구에 참배했다. 그리고 이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후지즈카(富士塚)라 불리는 미니 후지산을 만들고 이를 오르도록 하여, 후지산 등반에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을 대신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후지산록에는 몇 년 전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움진리교의 후지 새티암(satyam)이나 백광진공회(白光眞宏會) 본부, 생장의 집(生長の家), 후지도장(富士道場) 등의 종교 시설들이 지금도 준비하게 들어서 있어, 후지산이 말 그대로 일본인들의 성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은 일찍부터 문학작품의 제재나 소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즉 “다고의 개펄 지나 나와 보니, 후지의 높은 뒤편에 새하얗게 눈이 내려 쌓여있고냐⁶⁾”라는 아마베노 아카히토의 노래가 실려 있는 『만요집(萬葉集)』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고금화카집(新古今和歌集)』이나 『다케토리 이야기(竹取物語)』, 『이세 이야기(伊勢物語)』, 『사라시나 일기(更級日記)』, 미야코노 요시카(都良香, 834-879)의 『후지산기(富士山記)』 등에서 후지산이 작품의 중요한 소재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후지어람일기(富士御覽日記)』나 아스카이 마사요(飛鳥井雅世, 1390-1452)의 『후지기행(富士紀行)』, 교코(堯孝, 1391-1455)의 『후지관람기(覽富士記)』와 같은 후지산 관람기도 간행되었다.

5) 김사엽, 『김사엽전집』8, 박이정, 1984년 248쪽

6) 김사엽, 앞의 책, 249쪽

에도(江戸)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게이추(契沖, 1640-1701)의 『후지 백수(富士百首)』, 후큐 산진(不朽山人, ?-?)의 『후지산 백경 교카집(富士山百景狂歌集)』, 요류켄 가와마루(葉柳軒河丸, ?-?)의 『교카 후지찬(狂歌富士贊)』과 같은 가집(歌集)도 편찬되었다. 그러다가 후지산을 센겐(仙元) 대보살이라 칭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후지코(富士講)가 성행하면서 후지산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가모노 스에타카(賀茂季鷹, 1754-1841)의 『후지일기(富士日記)』, 자이유(在融, ?-?)의 『후지일기(不二日記)』, 오노 란잔(小野蘭山, 1729-1810)의 『후지채약기(富士採藥記)』, 와타나베 마사카(渡辺政香, 1776-1840)의 『후지기행(富士紀行)』, 마쓰조노 우메히코(松園梅彦, ?-?)의 『후지산 길잡이(富士山道しるべ)』와 같은 후지산 동반기나 동반 안내서 등이 대량으로 발간되었다.

이와 함께 가와무라 민세쓰(河村岷雪, ?-?)의 『백후지(百富士)』,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의 『부악 36경(富嶽三十六景)』, 『부악 백경(富嶽百景)』, 『도카이도 명소 일람(東海道名所一覽)』이나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廣重, 1797-1858)의 『후지산 12경(富士山十二百景)』, 『후지산 백경(富士山百景)』, 『후지 36경(富士三十六景)』, 우타가와 사다히데(歌川貞秀, 1807-1878?)의 『후지산 절정도(富士山絶頂の圖)』와 같이 후지산을 소재로 한 칼라 판화인 우키요에(浮世繪)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출판되었다. 후지산을 동반한 사람은 추억으로 삼고, 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을 알기 위해 너도나도 구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쿠사이의 후지산 우키요에는 그때까지 본 적이 없던 본격적인 풍경화였기 때문



<호쿠사이의 「고슈 이누메고개」>

에 초닌(町人)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었는데, 옆에 예로 든 것이 바로 풍경판화의 대가라 불리는 호쿠사이의 후지산 판화이다. 이것은 『부악 36경(富嶽三十六景)』, 즉 36군데에서 바라본 후지산의 모습을 그린 시리즈의 하나로 「고슈

이누메고개(甲州犬目峠)」란 우키요에인데, 고슈란 오늘날의 야마나시현(山梨縣)을 말한다. 이 시리즈는 원래 36매로 완결할 예정이었지만 우라후지(裏富士)라 불리는 10개소의 풍

경이 추가되어 총 46매로 구성되었는데 풍경화의 요소를 갖춘 최초의 판화라는 점에서 일본 미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면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는 완만한 산의 능선이 전경(前景)을 이루고 계곡에서 피어오른 흰구름이 중경을, 그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후지산이 원경을 형성해 자연경관을 매우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후 메이지(明治) 시대가 되면서 문부성이 “머리를 구름위로 내밀고(頭を雲の上に出し)”로 시작되는 「후지산」이란 창가(唱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고, 지폐에 후지산 문양이 사용되면서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 혹은 마음의 고향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쪽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사쓰마후지(薩摩富士)에서 시작하여 북쪽 홋카이도(北海道)의 아칸후지(阿寒富士)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〇〇후지라 이름 붙인 소(小) 후지산이 300개도 넘게 산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현대에도 후지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작가로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 1850-1904)나 도미야스 후세이(富安風生, 1885-1979),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 닛타 지로(新田次郎, 1912-1980)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후지산이 조선사절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이제부터 조선사절단의 일본여행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의 후지산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

한편 우리에게 후지산은 사행길에 만나는 대상이었다. 물론 근대 이후에도 「백두산」이라는 개화기 시조⁷⁾나 친일 작품으로 평가⁸⁾받고 있는 양명문(楊明文, 1913-1985)의 「후지산에 부쳐」와 같이 후지산이 등장하는 작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후지산의 본격적인 만남은 아무래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후지산을 등반할 수 있는 요즈음과 달리, 당시 조선인에게 후지산 등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외 도항(渡航)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이 허가된 사절이라 해도 사명(使命)의 중대함 때문에 유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사절에게 후지산은 그저 사행길에 지나치며 관상(觀賞)하는 대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에도 말인 1860년 외국인으로서 처음 후지산에 오른 영국 외교관

7) 白頭山아 무러보자 東方 太祖 네 아년가 / 金剛 九月 妙香 智異 帝國 基業 天城이라 / 저 건너 富士山 놉다 마라 海島 孤峰. 이는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1일자에 실린 시조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시발점인 백두산을 동방의 태조라 한 다음 13정맥(正脈)에 속한 금강산과 구월산, 지리산 등이 대한제국을 지키는 성이라 했다. 이어서 후지산이 비록 높다고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봉우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한일합방 전야의 급박한 한일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후지산은 일본을 상징하는 기표로 쓰이고 있다.

8) 김삼웅 편저,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1995년, 253-255쪽.

래더포드 올콕(Ratherford Alcock, 1809-1897)은 행운아였다. 그보다 늦게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김기수(金綺秀, 1832-?)나 박영효(朴泳孝, 1861-1939) 등은 멀리서 후지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일본사행록에 후지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96년 임진왜란의 강화교섭을 위해 명나라 책봉사 심유경(沈惟敬, ?-1597) 등과 함께 일본을 다녀온 황신(黃愼, 1560-1617)의 『일본왕환일기(日本往還日記)』이다. 그러나 이 때는 목적지가 오사카(大坂)였기 때문에 황신이 후지산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부사산(富士山)이라고 하는 산이 이 나라의 동쪽에 있어 가장 큰 산이라고는 하나, 형승(形勝)의 아름다움은 별로 불만한 것이 없다”⁹⁾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이다.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한 것이 없다고 한 점이 흥미로운데, 이러한 판단에는 물론 전쟁 중인 적국의 산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후지산을 직접 보고 묘사한 기록은, 당시 에도와 교(京)를 연결하는 1번 국도에 해당하는 도카이도(東海道)를 거슬러 올라가 에도에서 쇼군(將軍)을 만나고 돌아온 조선 통신사들의 기록을 기다려야 한다. 에도로 가는 도중에 후지산이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 조선은 총 12회에 걸쳐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이를 ‘신의(信)를 통(通)하게 하는 사절(使)’이란 의미¹⁰⁾에서 보통 통신사(通信使)라 불렀다. 그렇다고 그 12번의 사절이 모두 후지산을 구경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 1617년의 2차 통신사와 1811년의 12차 통신사는 각각 교토(京都)와 쓰시마섬(對馬島)까지만 갔기 때문에 후지산을 보지 못했다.

후지산을 직접 보고 묘사한 기록은, 1차 통신사인 1607년 사절단의 부사 경섭(慶暹, 1562-1620)이 지은 『해사록(海槎錄)』에 처음 보인다.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에 대한 회답 겸 임진왜란 포로 쇄환이라는 임무를 띤 사절단은, 일본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만나러 에도를 향해 가는 도중인 5월 16일 가케가와시(掛川市) 사요노나카산(佐夜中山) 고개에서 눈에 덮인 후지산 봉우리를 먼발치로 처음 보게 된다. 그리고 이틀 후에 후지시(富士市)에 있는 후지강(富士川)의 부교(浮橋)를 건너 다음 비로소 후지산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경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사산(富士山)이 등천 북쪽에 위치하여 일국의 종악(宗嶽)이 되었는데 형태가 시루 잎어놓은 것 같다. 산 중턱 이상은 눈이 길(丈)이나 쌓여 있어 마치 한겨울 같고, 바라보면 은산 옥봉(銀山玉峯)이 공중에 솟아 있는 것 같았다.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 눈은 7월 보름 경에 반쯤 녹았다가, 9월이 되면 도로 쌓이며, 비록 한더위 때일지라도 사람이 중간쯤

9) 황신, 『일본왕환일기』, 『국역해행총재』Ⅷ,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174 쪽

10) 李進熙,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講談社, 1987년 1 쪽

가면 추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며 봉우리 위는 평평하여 주위가 10리나 되며 가운데 큰 못 하나가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산의 높이와 넓이가 모두 4백리인데 준하(駿河)·신농(信濃)·갑비(甲斐)·상야(上野)·이두(伊豆) 등 주의 경계가 그 아래 둘러 있다. 봉우리도 계곡도 초목도 없고, 다만 모서리 없는 한 덩어리의 큰 돌일 뿐이다. 등천(藤川)의 물이 이 산에서 나오는데, 얼었던 눈이 비야흐로 녹아내리므로 수기(水氣)가 차가와 건너는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한다. (중략) 그 나라의 풍속이 6월 초1일에는 얼음을 삼켜, 한 해 동안의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삼는다. 국중에 얼음이 없고 오직 이 산에만 사철 있는데, 얼음을 깨어 수송하는 동안에 바로 녹아버려 겨우 천황(天皇)과 관백에게 바칠 따름이다. 그 중에 얼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년 12월 초1일에 얼음 덩이 모양처럼 떡을 만들어 저장해두고 기다리다가, 6월이 되면 얼음 대신 먹는다 한다¹¹⁾.

등천(藤川)이란 후지강을 말하는데, 자신의 관찰과 일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한 이 기술은 지금 봐도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 중턱 이상은 눈이 길이나 쌓여 있어 마치 한겨울 같”다고 한 부분은,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산정에 눈이 쌓여 있고 그 쌓인 눈의 깊이가 최대 3m나 된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우리 위는 평평하여 주위가 10리나 되며 가운데 큰 못 하나가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 부분이나 “산의 높이와 넓이가 모두 4백리”라는 부분도, 내원(內院)이라 불리는 산꼭대기 분화구의 둘레가 약 3.5km이고 산록의 둘레가 153km쯤 된다는 사실과 대조해 보면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산의 높이가 400리, 즉 160km라 한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여기서 오히려 그가 “은산 옥봉이 공중에 솟아있는 것 같았다”고 기술한 것처럼 후지산의 높이에 대해 그가 받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섬에게 있어 후지산은 단지 ‘모서리 없는 한 덩어리의 큰 돌일 뿐’이었다. 즉 그 높이 때문에 초여름에도 머리에 눈을 이고 있어 신기하기는 하지만, 산 이상의 그 무엇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 사진은 경섬과 마찬가지로 후지시에서 바라다본 후지산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 오른쪽 산중턱에 조금 불룩하게 솟아나온 것이 보영산(寶永山)이다. 이 산은 1707년의 후지산 분화로 인해 생긴 산이므로, 경섬이 후지산을 보았던 1607년에는 없던 것이다. 경섬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생긴 산이다.

그리고 경섬의 글 중에서 후지산의 얼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일본에서 천연 얼음을 이용한 역사는 만요(萬葉)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후지산의 얼음을 이용했다는 기록은 가마쿠라(鎌倉)무렵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가마쿠라에는 냉동실이 없었기 때문에 얼음이 필요할 때마다 후지산에서 직접 가져다 썼다고 한다. 에

11) 경섬, 『해사록』, 『국역해행총제』Ⅱ,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291 쪽



도시대에는 매년 3월에 후지산의 얼음을 채취해 에도까지 말로 운반했는데, 90cm의 얼음이 에도에 도착하면 6cm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6월 1일에 사용되는 얼음은 후지산의 얼음이 아니고, 후지산과 함께 일본 3대 영산의 하나로

<경성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후지산>

꼽히는 하쿠산(白山)의 얼음이다. 하쿠산이 속해 있는 가가번(加賀藩)에서는 에도로 가는 길 요소요소에 설치된 얼음 창고를 이용해 겨울에 미리 하쿠산의 얼음을 에도의 얼음 창고로 옮겨두었다가, 6월 1일 이를 쇼군에게 헌상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¹²⁾.

다음 사절인 1617년의 2차 통신사는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579-1632)를 교토의 후시미성(伏見城)에서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 후지산을 보지 못했기에 후지산에 대한 기술이 없다. 다만 종사관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이 『부상록(扶桑錄)』에서 “명산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육오의 금화(金華)와 감비의 부사(富士)를 일컫고 …… 모두 신 등이 보지 못한 곳이고, 다만 산성(山城)의 애탄산(愛宕山)과 기이(紀伊)의 웅야산(熊野山)을 보았는데, 모두 명산이며, 웅야는 곧 서복사(徐福祠)가 있는 곳이다”¹³⁾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경직은 2차 통신사의 정사인 오윤겸(吳允謙, 1559-1636)과 함께 1차 통신사의 종사관 신분으로 여우길(呂祐吉, 1567-?)을 수행한 적이 있었으므로¹⁴⁾, 1607년에 이미 후지산을 보았지만 2차 통신사행에서는 보지 못했으므로 이에 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을 것이다.

1624년 3차 통신사는 12월 5일 하마마쓰(浜松)에서 멀리 솟아 있는 후지산을 처음 보고 12월 8일 후지강을 건너기 전 후지산을 다시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부사 강홍중(姜弘重, 1577-1642)은 “동쪽으로 꺾여 부사산(富士山) 밑을 지나니 산이 큰 평야 가운데에 있는데 세 고을 경계에 걸타고 우뚝이 솟았다. 흰 구름이 항상 산 허리

12) 山崎眞由子, 「お米さまのお通りだ」, 『富士山2004』, 山と溪谷社, 2004년 98-100쪽.

13) 이경직, 『부상록』, 『국역해행총제』Ⅲ,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141쪽 이후 쓰시마섬에서 역지교빙(易地交聘)을 한 1811년의 마지막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매번 후지산에 관한 시나 기록이 사행록에 등장하고 있다.

14) 이익성, 「부상록 해제」, 『국역해행총제』Ⅲ,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9쪽

아래에 돌아 설 새 없이 하늘을 가리고, 산꼭대기에는 사철 늘 눈이 쌓여 오뉴월 염천에도 녹지 않으니, 바라보매 두려웠다. 참으로 천하장관(天下壯觀)이었다¹⁵⁾”고 기록하고 있다. 12월 8일의 기록이므로 산꼭대기의 눈이 “오뉴월 염천에도 녹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겠지만, 구름 위에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을 보고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후지산을 ‘모서리 없는 한 덩어리의 큰 돌일 뿐’이라고 한 경섬과 달리, 그는 구름을 뚫고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과 산정을 뒤덮고 있는 눈을 보고 천하장관이라 감탄했는데, 귀로에서도 비와호(琵琶湖)에 비친 성루를 바라보고 다시 후지산을 떠올리며 참으로 천하장관이었다고 탄복했다. 그렇지만 그가 후지산을 그냥 자연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섬과 마찬가지로였다. 즉 이 시기까지의 조선통신사에게 있어 후지산은 그냥 하나의 산, 자연경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처럼 후지산에 대한 간략한 묘사만 존재할 뿐 문학적 감흥을 읊은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3차 통신사까지의 주된 임무가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 즉 회담 겸 쇄환이었기 때문에, 한가로이 문학적 감흥에 빠져들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절의 선발에도 영향을 미쳐, 이혜순이 ‘비문학적 인물’¹⁶⁾이라 표현한 것처럼 사절단을 문학적 재능보다는 외교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로 선발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4. 선계(仙界)로서의 후지산

1636년 4차 통신사의 사행록에서부터 후지산에 대한 문학적 감흥을 읊은 시가 등장한다. 이는 전후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 사절들의 선발에 심정적인 여유가 생긴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4차 통신사의 사명이 회담 겸 쇄환에서 태평세월을 축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때부터 6차 통신사까지 닛코(日光)에 있는 이에야스의 사당인 동조궁(東照宮)에서 제를 올리게 되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이문학관(吏文學官)이나 독축관(讀祝官)에 시문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후지산을 바라보는 통신사의 시각도 변화하게 된다.

4차 통신사의 부사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은 특히 시에 뛰어나 사행 중에 많은 시를 남긴 사람인데, 귀로의 오사카에서 순풍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사절단을 수행하던 이정암(以厓庵)의 승려 소장로(召長老)가 금병풍 6폭을 보내 후지산 읊시를 써달라고 부탁

15) 강홍중, 『동사록』, 『국역해행총제』Ⅲ,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225쪽

16)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년 31-33쪽

한 것을 보면 그의 시가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행 중에 쓴 시를 모아 편집한 것이 『사상록(槎上錄)』인데, 여기에 「후지산(富士山)」이라는 제목의 7언 율시 8수가 전한다. 그 중의 일부를 같이 보기로 하자.

.....

하늘 가 부사산 눈에 싸여 우뚝하다,	士峰天畔雪嵯峨
한발에 말 멈추고 좋은 경치 가려 보네 .	立馬郊原選勝過
옥수엔 새벽이라 돋는 해 매달리고,	玉樹曉懸暘谷日
은대는 차거웁다 물결을 눌렀구료!	銀臺寒壓紫泥波
신선이 사나보다 삼신산이 가직하고,	神仙頻覺三山近
기색은 높다라 오악에 다다랐네 .	氣色高臨五岳多
여기서 선도는 바로 곧 지척이건만,	此去仙都還咫尺
몇 사람이 올라보고 긴 노래를 불렀을꼬 .	幾人登眺獨長歌

.....

진시황 약 찾던 일 상기도 생각는데,	尙憶秦皇靈藥求
이제껏 숨었다네 진경인 그 단구는.	至今眞境闕丹丘
중봉은 이슬히 봉래산을 눌러 있고,	中峰迺壓蓬萊頂
절학에선 말해가 평등으로 마주 뵈며.	絕壑平看渤海流
에서 가면 신선님넬 뉘가 다시 알아볼꼬 ,	此去仙翁誰復識
근래에는 은궐을 거듬 노닐 일이 없다네 .	向來銀闕隔重遊
옷 걷고 천문 기대 휘파람을 부노라니,	披衣獨傍天門嘯
머리 세는 인간 세상 머물 곳이 못되는걸 .	頭白人間未可留 ¹⁷⁾

.....

눈 덮인 후지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삼신산이 가직하고”라 하여 조선을 삼신산이 있는 선계로 인식하고 “에서 가면 신선님넬 뉘가 다시 알아볼꼬”라며 자기를 신선에 빗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이라든가 ‘선도’, 신선이 산다는 ‘단구’나 ‘은궐’이란 말과 ‘머리 세는 인간 세상’을 대비시켜 후지산도 선계로 인식하고 있다. 즉 조선과 후지산을 모두 선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전까지는 단지 자연경관에 불과하던 후지산이 선계로 바뀐 것이다. 전임 통신사가 본 후지산이나 김세렴이 본 후지산이나 모두 똑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 똑같은 산이 여기서는 선계로 이미지가 변한 것

17) 김세렴, 『사상록』, 『국역해행총제』IV,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290쪽

이다.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한 것은 1643년 5차 통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부사 조정(趙綱, 1586-1669)의 「부사산」이란 시의 일부분을 음미하기로 하자.

하늘 찢러 솟아올라 십주를 굽어보니,	陡起衝霄鎖十州
높디높은 돌빛이 구름과 함께 떴구나.	嵯峨石色與雲浮
거령이 손바닥 움츠려 힘없음을 부끄러워하고,	巨靈縮掌慙無力
공공씨가 머리 숙여 부주산을 피하였네.	共氏垂頭避不周
옥정련을 캐려하나 몸에 날개가 없고,	欲採井蓮人未羽
보이느니 안개 표에 수레 돌리는 해뽀!	但看霞標日廻輶
내 고향에도 또한 비로봉이 있거니,	吾鄉亦有毗盧頂
손홍공처럼 꿈에 논 부를 지어 무슴하리 .	那學興公賦夢遊

천제가 눌러 지세가 동남으로 기울어지매 ,	帝壓東南地勢傾
이 한 기둥을 마련하여 반공을 지탱했구나.	經營一柱半空撐
만천이 안 넘치니 땅 기반이 장할씨고,	萬川不溢坤維壯
팔해가 안 쏠리어 자라 등이 평탄코나.	八海無偏鰲背平
이곳이 선경인 줄 천하가 이미 아는데	天下已知同閩圃
세상사람 부질없이 봉래·영주 얘기하네 .	世人謾自說蓬瀛
진시황·한무제가 불사약을 구했으나,	秦皇漢武求靈藥
방외의 이 산 이름 들어보지 못했구나.	耳泯茲山象外名 ¹⁸⁾

.....

거령이나 공공은 모두 중국신화에 나오는 신이다. 특히 물의 신인 공공은 어느 날 불의 신 축융(祝融)과 싸움을 벌였다가 지자, 분을 참지 못하고 부주산에 박치기를 하여 부주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을 부러뜨리고 대지를 잇는 줄을 끊어뜨려 하늘은 서북으로 땅은 동남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구멍 뚫린 하늘에서 큰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고, 산림에 서식하던 맹수들이 뛰쳐나와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사람을 만든 신인 여와(女媧)가 강 속의 오색 돌을 불에 녹여 반죽한 다음 하늘에 뚫린 구멍을 막고, 바다 가운데 사는 거대한 거북의 네 발을 잘라 무너진 하늘을 떠받쳤다. 또 물가에 난 갈대를 태운 재를 쌓아 강물의 범람을 막고, 맹수를 잡아 지상의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천지가 기울어진 것은 완전히 고치지 못했으므로, 지금도 중국 대륙은 서북과 동남으로 기울어져 있고 때때로 홍수가 사람을

18) 조정, 『동사록』, 『국역해행총제』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69-70쪽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조차도 후지산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하여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옥정련(玉井蓮)이란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 768-824)의 시에 나오는 말로 화산(華山) 봉우리에 있는 옥정에 핀 연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후지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¹⁹⁾.

그런 다음 바로 “내 고장에도 또한 비로봉이 있거니 / 손홍공처럼 꿈에 눈 부를 지어 무슴하리”라 하여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떠올리고 있다.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을 묘사한 다음 바로 비로봉을 이야기하여 비로봉을 후지산과 등치시키고 있다. 아니 시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비로봉을 후지산보다 훨씬 위에 올려놓고 있다. 손홍공(孫興公)은 진(晉)나라 시인인 손작(孫綽)으로 홍공은 그의 자인데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었다. 자신이 후지산에 관한 시 지은 것을 손작이 「천태산부」를 지은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연에서 동남으로 기울어진 하늘을 후지산이 떠받치고 있어 세상이 평탄해졌다며 다시 후지산의 위용을 칭찬한 다음, “이곳이 선경인 줄 천하가 이미 아는데 / 세상사람 부질없이 봉래·영주 얘기하네”라며 후지산이 신선들이 산다는 삼신산인 선계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런데 4차 통신사부터 후지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당시 조선에서 신선도(神仙圖)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회화에 신선이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부터이고 독립된 화목으로 대두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지만, 신선도가 본격적으로 성행한 것은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였다. 당시 신선도를 주로 그린 것은 김명국(金明國, 1600-1662?)을 비롯하여 절파풍(浙派風)을 구사한 화가들이었는데²⁰⁾, 김명국은 4차 통신사와 5차 통신사의 수행화원이기도 했다²¹⁾. 그는 시(詩)·서(書)·화(畵)의 삼절(三絶)이라 불

19) 사행록에서 후지산을 비유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 5차 통신사의 조경을 경계로 사용되는 단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차 통신사까지는 후지산의 모양을 ‘시루 얹어놓은 것(形如覆甌, 경성의 『해사록』), ‘술을 얹어놓은 모양(如覆鼎形, 황호의 『동사록』과 김세림의 『해사록』)이라 했는데, 5차 통신사부터는 ‘부용(芙蓉, 저자 미상의 『계미동사일기』), ‘옥정련(井蓮, 조정의 『동사록』), ‘부용/시루(芙蓉/甌, 남용익의 『부상록』), ‘백옥잠(白玉簪, 신유한의 『해유록』), ‘부용(芙蓉, 조업의 『해사일기』)이라 비유하고 있다. 후지산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것은, 아마도 후지산을 선계로 바라보는 조선통신사의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논문에서 상술하겠지만, 후지산을 선계로 바라보는 조선통신사의 인식이 이후로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용익이 ‘부용’과 ‘시루’를 혼용한 것은, 그가 후지산을 폄하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일본인들과 소위 ‘금강산과 후지산의 우열 논쟁’을 처음 벌였기 때문일 것이다.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년, 838쪽.

21) 12회에 걸친 통신사행에서 수행화원으로 2번이나 발탁된 것은 김명국이 유일하다. 더구나 4차 통신사행 때 인삼을 밀매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그를 5차 통신사행에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1662년에 쇼군(將軍)이 그의 방일을 요청한 것(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205권, 한국미술사학회, 1995년 10-12쪽)을 보면 그의 그림이 당시 일본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명국은 4차 통신사행 때 그림을 청하는 일본인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어 거의 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김세림, 『해사록』, 『국역해행총제』IV, 민족문화문고간행회, 72-73쪽).

렸던 신위(申緯, 1769-1847)가 “인물 활동에 필법과 묵법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니 백년 내 아마 많지 않은 솜씨”²²⁾라 평할 정도로 당시 조선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였는데, 「신선도(神仙圖)」, 「도선도(道仙圖)」, 「수노인도(壽老人圖)」, 「달마도(達磨圖)」, 「달마절로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와 같은 작품을 남겼다. ‘수노인’이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남극성(南極星)을 상징하는 신선이고, 승려인 달마는 위진 魏晉 시대 이후 도교에 불교가 혼합되어 도교가 불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서 신선가(神仙家)의 신선으로 모시게 된 인물²³⁾이다.

5. 끝내는 말

해발 3,776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의 후지산은 1707년의 분화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휴화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1년의 2/3 이상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가도 한번씩 불을 뿜어내는 후지산은, 예로부터 일본인들에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슈겐도나 센겐신사, 후지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백광진광회를 비롯한 현대의 많은 신흥종교들이 후지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분화구인 성지에 참배하면 센겐대보살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후지코가 에도시대에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지산을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지산 등반기나 안내서를 비롯하여 후지산을 그린 우키요에가 대량으로 출판되어 후지산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가 되었고, 이후 메이지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통신사에게 후지산은 그저 사행길에 지나치면서 관상하는 대상이었다. 최초의 통신사인 1607년 사절단의 경섭은 후지산을 보고 그냥 모서리 없는 한 덩어리의 큰 돌일 뿐이라고 했다. 즉 초여름에도 머리에 눈을 이고 있어 신기하기는 하지만, 산 이상의 그 무언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후지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3차 통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3차 통신사의 부사 강홍중은 구름을 뚫고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과 산정을 뒤덮고 있는 눈을 보고 천하장관이라 감탄했지만, 후지산을 그냥 자연경관의 하나로 바라보는 점에서는 1차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즉 이때까지의 조선통신사에게 있어 후지산은 그냥 하나의 산, 자연경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후지산에 대한 간략한 묘사만 존재할 뿐 문학적 감흥을 읊은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지산에 대해 문학적 감흥을 읊은 한시는 1636년 4차 통신사의 사행록에서부터 등장

22) 이동주, 『한국회화소사』, 범우사, 1996년 126쪽에서 재인용

23)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감상』, 교보문고, 1991년 192-193쪽

하는데, 이와 함께 후지산을 바라보는 통신사의 시각도 변화하게 된다. 즉 4차 통신사의 부사 김세렴은 「후지산(富士山)」이라는 제목의 7언 율시에서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후지산과 함께 우리나라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전까지 자연경관에 불과하던 후지산이 그에게서 선계로 바뀐 것이다. 전임 통신사가 본 후지산이나 김세렴이 본 후지산은 모두 똑같은 모습의 산이었지만, 그 똑같은 산이 여기서 선계로 이미지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후지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643년 5차 통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1차 통신사부터 3차 통신사까지는 후지산을 단순히 자연경관의 하나로 바라보았지만, 4차 통신사와 5차 통신사는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지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 후로도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參考文獻】

- 민족문화추진회(1986) 『국역해행총제』 I-X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38 쪽
 김사엽(1984) 『김사엽전집』8, 박이정, 248-249쪽.
 김삼웅 편저(1995)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253-255 쪽
 이동주(1996) 『한국회화소사』, 범우사, 126쪽.
 이익성(1986) 「부상록 해제」, 『국역해행총제』Ⅲ, 민족문화문고간행회, 9쪽.
 이혜순(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1-33쪽.
 허균(1991) 『전통미술의 소재와 감상』, 교보문고, 192-193쪽.
 홍선표(1995)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205권, 한국미술사학회, 10-12쪽.
 秋庭隆編輯(1996) 『日本地名大百科』, 小學館.
 李進熙(1987)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講談社, 1쪽.
 西川治(2003) 『第1回富士學會大會2002報告書』, 富士學會, 2쪽
 山崎眞由子(2004) 「お水さまのお通りだ」, 『富士山2004』, 『山と溪谷』7月號増刊, 山と溪谷社, 98-100쪽.
 新人物往來社編輯部(2002) 『圖說富士山百科』別冊歴史讀本14, 新人物往來社.

富士山NET(<http://www.fujisan-net.jp>)

あっぱれ富士登山(<http://www.001.upp.so-net.ne.jp/fujisan/>)

要 旨

本稿は、日本人の心の故郷といわれる富士山を朝鮮通信使がどのようにみていたかを考察するため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江戸時代、朝鮮は12回の朝鮮通信使を日本に派遣した。彼らは東海道を上りながら富士山を目のあたりにして、その感想を使行録に書き記している。

1次通信使は富士山を「ただ一塊の大きい石」として見ていた。すなわち、初夏でも山頂に雪を被っている、新奇な山ではあるものの、山それ以上のなものではなかった。言い換えれば、自然景観としての富士山にすぎなかったのである。そして富士山に對する、このような認識は3次通信使にいたるまで変わらない。

4次通信使からは富士山を詠んだ漢詩が登場するが、これと共に富士山を見る通信使の視角も変わる。すなわち、4次通信使の副使、金世濂は「富士山」と題する漢詩のなかで富士山を仙界として認識していた。もちろん、彼は富士山と共に朝鮮も仙界と認識しているが、とにかく、それまで自然景観に過ぎなかった富士山がここから仙界に変わっ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認識は5次通信使の場合にも同じである。

キーワード：心の故郷, 富士學, 富士講, 朝鮮通信使, 富士山詩, 自然景観, 仙界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외국어학부
電 話 : 041-580-2173
e-mail : chunges@nsu.ac.kr